한류, 이번엔 웹툰이다!

한국 웹툰, 글로벌 공략 "한류 뉴웨이브"

카카오·네이버·NHN엔터 등 해외진출
한국작품 번역·현지작가 작품 서비스
플랫폼 협력 비즈니스모델 도입 확대

이슈

한국 웹툰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웹툰 플랫폼이 해외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한 한국 작품의 해외 진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이 해외 플랫폼에 적용된 사례도 등장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지의 유료 비즈니스 모델 '기다리면 무료'가 중국의 텐센트동만에 도입된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콘텐츠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이 중국 현지 플랫폼에 정식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 콘텐츠 공급 차원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을 비롯한 플랫폼 운영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카카오는 이에 앞서 올해 초 텐센트동만과 협력해 '연애싫어', '소녀신선', '마검왕' 등 다음웹툰과 카카오페이지 20개 작품을 중국 독자들에게 선보였다. 두 플랫폼은 향후 2차 콘텐츠, 동영상 등 지적재산권(IP)사업으로 협업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중국에서 텐센트를 비롯한 현지 플랫폼을 통해 100개 이상의 한국 웹툰을 서비스 하고 있다. 또 일본에선 카카오재팬이 설립한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픽코마'를 통해, 북미에선 현지 웹툰 및 웹소설 플랫폼 타파스와 협력해 국내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지(왼쪽)의 '기다리면 무료'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 텐센트동만. 사진제공 | 카카오

네이버 웹툰의 경우 이미 해외 사용자가 국내 사용자를 뛰어넘었다. 글로벌 웹툰 서비스 브랜드인 '라인 웹툰' 연재작의 경우 누적 조회수가 50억 건을 넘었다. 네이버는 지난 2014년 영어와 대만어 버전으로 라인 웹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버전 등을 추가해 현재 총5개 언어 버전을 제공중이다. 한국 웹툰 번역본은 물론 현지 작가들의 작품도 서비스 하고 있다. 한국 작품의 경우 해외 2차 판권 체결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27건의 2차 저작물 판권 계약이 해외 제작사 등과 체결됐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서비스 '코미코'를 일본, 대만, 한국, 태국, 스페인 5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다운로드는 2500만 건을 넘었다. 이 회사는 최근 한국 웹툰 제작사를 대상으로 코미코 글로벌 사업 전략 설명회를 가졌다. 글로벌 시장 매출을 견인할 콘텐츠로 한국 웹툰을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최적화된 연재 방식을 지원하고, 유료 매출에 대한 수익 배분 및 2차 사업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레진코믹스도 지난 2015년 12편의 웹툰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현재 130여편의 한국 웹툰을 영어로 번역해 서비스 중이다. 일본에서도 2015년 16편의 한국 웹툰으로 일본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국에선 포털 텐센트와 웹툰 플랫폼 콰이칸과 제휴를 맺고 웹툰 연재에 나섰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AI로 메이크업 컨설팅, 뷰티업계 '스마트 바람'

LG생활건강 '네이처컬렉션' 강남점 리오픈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미러' 스마트 시연

모델이 3일 LG생활건강 뷰티 편집숍 '네이처컬렉션 스마트스토어' 강남점에서 '오늘 나의 메이크업'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 LG생활건강

뷰티업계에 스마트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 강세에 주춤했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점포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

LG생활건강은 3일 스마트 스토어로 뷰티편집숍 '네이처컬렉션' 강남점을 선보였다. 이곳에서는 '오늘 나의 메이크업' 앱이 매장의 핵심 콘텐츠다. 앱으로 자기 모습을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이 화장을 분석해 내추럴, 러블리, 스모키 중 가장 가까운 콘셉트와 메이크업 완성도를 점수로 표시해준다. 또 베이스, 아이, 쉐이딩, 립, 아이브로우 등 다섯 가지 항목별 세부점수와 메이크업 노하우가 제공되며 보완점에 대한 정보와 함께 관련 제품도 추천해준다.

'메이크업 디스플레이존'에서는 메이크업 노하우, 제품의 제형 및 발색과 관련된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도 서울 신촌 아리따움 옴니스토어에서 IT기술을 활용한 '메이크업 미러' 서비스를 내놓았다. 고객의 피부 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각자의 피부에 알맞은 톤을 추천한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SK텔레콤과 IoT 기반의 스마트 뷰티 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어 앞으로 제조공장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뷰티업계에 스마트 바람이 부는 것은 젊고 트렌디한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특별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LG생활건강 측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오프라인 매장에 식상함을 느낄 젊은층 고객에게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오버워치 리그' 서울 팀 오너인 케빈 추(가운데)가 향후 팀 운영계획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필립 현 서울 팀 부회장(왼쪽)과 네이트 낸저 블리자드 오버워치 리그 총괄. 사진제공 |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케빈 추 "오버워치팀에 수 천만 달러 투자"

서울지역 팀 오너…비즈니스 모델도 자신

"수 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인기게임 '오버워치'의 글로벌 대회인 '오버워치 리그'의 서울지역 팀 소유주인 케빈 추가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케빈 추는 3일 서울 삼성동 파크 하얏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법인 설립계획 등을 밝혔다. 그는 "투자 규모를 정확히 밝히긴 어렵지만 수 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며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훈련시설도 구축할 것이다"고 말했다.

케빈 추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카밤이란 게임 회사를 설립해 연매출 4억 달러로 키웠고, 올해 초 한국의 넷마블게임즈에 8억 달러에 매각한 바 있다. 그는 "한국과 서울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다음단계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오버워치 리그만큼 딱 들어맞는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팀오너로 확정된 뒤 국내 e스포츠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팀 구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는 그는 2년 내 수익을 낼 것이라며 팀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오버워치를 중심으로 한 e스포츠팀은 20~30년 뒤 현존하는 세계적 스포츠팀과 같은 명성 가질 것이다"며 "2년 내 수익을 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국에만 팬을 둔 팀이 아닌 세계적으로 팬을 보유한 글로벌 팀으로 키우면 수익성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발표한 7개 도시 팀 외에 새롭게 합류할 도시와 팀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연말 미국 LA에서 대회를 열고, 향후엔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리그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뉴스디자인 | 이수진 기자

국내 최대 도심형 가상현실 테마파크 개장

인천 송도에 '몬스터 브이아르' 오픈

실내에서 다양한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테마파크가 개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은 4일 오전 인천 송도 트리플스트리트에서 국내 최대 도심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 '몬스터 브이아르(VR)'를 개장했다. 문체부가 한콘진을 통해 추진중인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존 조성' 사업의 하나로, 공모에서 선정된 지피엠, 비브스튜디오, 미디어프론트가 공동 조성했다.

총 1322m²(400평) 규모로 열기구.래프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정글존'을 비롯해 '볼트: 체인시티'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네마존', 사격, 우주체험 등 20여 종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큐브존', 카레이싱, 어트랙션 슈팅게임이 지원되는 '익스트림 에버랜드존' 등 총 4개의 주제로 구성했다. '몬스터 브이아르(VR)'의 매력은 영화·게임·스포츠·교육·음악 등 40개의 다양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 있는 가상현실 테마파크에 비해 4배 가량 많은 수치다.

문체부는 '몬스터 브이아르(VR)'에 이어 11월 제주도 수목원테마파크(주관 카카오)와 경주 화백컨벤션뷰로(주관 쓰리디팩토리)에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존을 조성해 개관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SKB 국내 최초 10기가 인터넷 시범 서비스

SK브로드밴드는 서울과 경기도 안양 일부에 국내 최초 10기가(10Gbps) 인터넷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기가인터넷(1Gbps)은 1GB 용량 콘텐츠를 내려받는데 8초가 걸리는데 10기가 인터넷은 0.8초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8K 초고화질(UHD) 대용량 방송 콘텐츠와 홀로그램 멀티뷰 및 멀티앵글 IPTV 등 실감영상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신화월드, GD 등장 브랜드 캠페인 공개

제주 서귀포의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가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이 등장하는 브랜드 캠페인 이미지를 공개했다. 제주신화월드는 서귀포시 안덕면의 250만m² 부지에 건설하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로서 7월23일 지드래곤을 브랜드 앰버서더로 전격 발탁한 바 있다. 현재 제주신화월드는 4월부터 프리미엄 콘도미니엄 서머셋 제주신화월드가 운영 중이며, 7일부터는 신화테마파크 티켓 판매를 시작한다. 또한 연말까지 신화테마파크와 YG 타운(가칭) 등을 차례로 개장할 예정이다.

고품격 당신의 스타일! "미츠바" 게르마늄 팔찌로 마침표를 찍다.

변치않는 또 하나의 명작! 세계적인 명품 MITZVAH 게르마늄 건강팔찌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과 패셔너블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감각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있는 명품 브랜드 미츠바는 품질과 디자인이 탁월하며 전체적인 디테일은 물론 은은한 색감에 이르기까지 럭셔리함이 묻어나와, 세계적인 명품브랜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고품질의 재질과 패턴을 자랑합니다.

■제품구성 :
미츠바게르마늄 팔찌,
선물용 고급케이스,
품질보증서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을 하시려는 분
▶장시간 컴퓨터,운전을 하시는 분
▶골프 비거리를 늘리고 싶으신 분
▶가사노동에 시달리시는 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원하시는 분
▶집중력이 긴요하게 필요하신 분

• 설계/디자인 : 미츠바(MITZVAH) • 사이즈 : 21×1.2×0.3cm • 무 게 : 36g • 색 상 : 골드칼라 / 실버칼라
• 판 매 원 : (주)홈쇼핑코리아 • 재 료 : 게르마늄×15EA / 텅스텐 / 지르코니아 세라믹

세련된 디자인에 건강을 생각하는 건강팔찌

100개 한정판매

1개 구입시 298,000원 → 158,000원
2개 구입시 596,000원 → 280,000원

– 각종 신용카드 5개월 무이자 할부가능 –
택배비 무료배송 / 남 · 녀 공용
www.mitzvah.co.kr

미츠바 게르마늄 목걸이
• 칼 라 : 골드 / 실버 • 중 량 : 52g
• 소 재 : 게르마늄×50EA
• 넓 이 : 0.7cm • 사이즈 : 62cm
• 두 께 : 0.3cm
남녀공용
1개 구입시 598,000원 → 특별할인가 398,000원
2개 구입시 1,196,000원 → 특별할인가 750,000원

구입문의 1800-4700